

## 미래의 하늘과 우주를 향한 힘찬 도약



금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성남에 소재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에어쇼 '96」 기간중에는 항공우주산업 및 방산제품의 실내 전시와 항공기들의 옥외전시, 그리고 시험비행과 곡예비행 외에도 항공우주 심포지엄과 기술시장이 개최될 예정이다

趙 周 衡 공군대령, 서울에어쇼 '96 홍보실장

**라이**트 형제에 의해 처음으로 동력비행기가 발명된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비행기 제작과 각종 전시회 및 비행시범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9월초에 열렸던 영국의 환보로 에어쇼는 1917년부터 시작한 오랜 역사가 있기에 그 역사와 경험만큼이나 훌륭하게 치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에어쇼 개최 경위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공군은 국군의 날을 경축하는 행사로서 전투기들이 에어쇼라는 이름으로 각종 비행 묘기들을 국민들에게 선보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어쇼하면 그저 항공기의 묘기비행 또는 곡예비행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적 에어쇼는 단순한 항공기의 비행시범이 아니라 그러한 항공기가 존재하기까지 뒷받침이 되는 항공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박람회 성격

을 갖는다.

공군에서는 1984년 처음으로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행사를 가졌으며, 2회 행사가 있었던 1986년에는 청주의 공군사관학교에서 심포지엄과 소규모의 항공산업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그 후 격년제로 열리는 항공우주 심포지엄은 항공산업 전시 규모를 조금씩 확장하면서 장소를 KOEX로 옮겨서 실시하였고, 1994년 6회 행사 결과 보고시 차기 행사부터 항공기들의 시범 및 곡예비행을 겸한 국제적 대규모 에어쇼 행사로 추진한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심은 그 동안의 행사를 치르면서 국내·외 항공관련 업체의 산업전시회에 대한 관심 고조와, 산업전시회에 각종 항공기, 탑재 장비 등의 실물전시 및 시범비행 요구가 증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항공과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국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였으며, 또한 항공우주 과학 분야의 세계화 구현과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지향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각계의 성원에 의한 것이다.

### 행사규모

이번 행사는의 정식 명칭은 “제7회 서울 국제 항공우주심포지엄 및 에어쇼”(The 7th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Symposium and Air Show)로서 약칭은 「서울에어쇼 '96」이다.

이 행사는 '96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간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의 동편 보조활주로에서 열린다. 이미 보도매체를 통하여 알려졌지만 처음부터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 공군이 주최가 되어 600명의 공군요원이 투입될 것이며 세부적인 행사장 설계, 재원 획득 및 배분, 세부 행사 계획 등의 업무를 한국 항공우주산업 진흥 협회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다.

추진 과정에서 국제적 행사인만큼 범국가적인 행사로 격상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에 의

해 국무총리가 명예대회장이 되고, 공동대회장에는 국방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 그리고 부대회장에 공군참모총장과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조직되었다.

실제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국방부에 국방부·통상산업부 공동추진위원회가 있으며 공군과 협회 인원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가 실제적인 행사준비를 담당하고 있다. 행사 1개월 전부터는 준비조직에서 실제운영 조직으로 바꾸어 추진할 계획이며 이때에 소요되는 인원이 약 1,000여명 된다.

물론 공군내부에는 이 행사와 관련된 각 참모분야의 실무장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으므로 실제적인 참여인원은 거의 2,000여명에 육박한다.

서울공항의 에어쇼 행사장은 운영본부 및 관리동(810평), 6개의 실내 전시동(8,200평), 샬레 33개동(730평), 그리고 실외전시장 42,000평과 편의시설 등 총면적 10만평에 달한다.

F-16기로 미국의 대표적 에어쇼 팀인 썬더버드 Thunderbirds. 곡예팀 94년 8월 수원비행장에서 시범비행을 보인바 있다

에어쇼의 목표가 세계 항공 선진국의 유수업체들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항공기, 장비 및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외 업체간의 비즈니스 창출 및 국제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참가 규모에 의해 에어쇼의 규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150개 참가를 목표로 세웠던 외국업체가 현재 21개국 135개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업체는 당초 50개 목표를 초과하여 70여개 업체가 참가를 신청하였다.

이들중에는 미국에서 Lockheed Martin, Boeing, Bell, Sikorsky를 포함한 44개, 영국의 BAe, GEC-Marconi 등 21개, 프랑스의 Dassault 외 16개, 러시아 5개 등 해외 21개국의 업체들이 참가하고, 국내의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등 대규모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규모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나 동북아 최초의 에어쇼라는 이점때문인지는 모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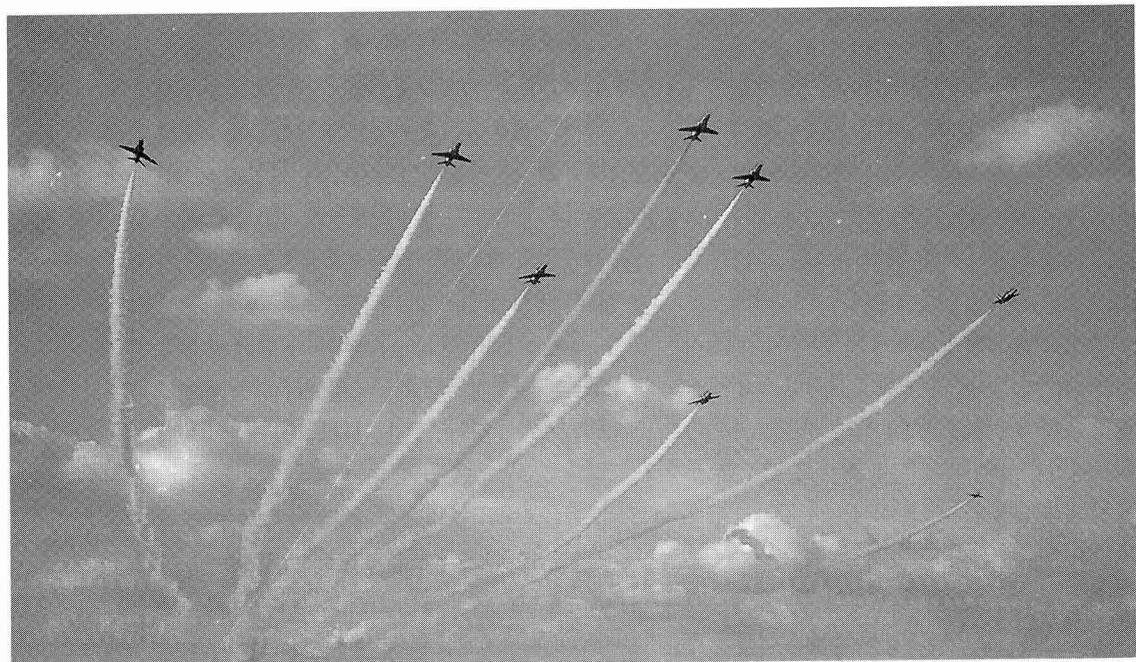
오늘날 에어쇼는 단순한 시범비행 뿐만 아니라 항공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박람회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나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항공기의 참가 규모는 9월초까지 참가 신청을 낸 지상전시 항공기가 46대로서, 한국공군 보유 항공기 10대를 제외하면 국내·외 전투기, 여객기, 수송기, 헬기 등 36대가 전시된다.

이중에는 걸프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美 공군의 F-117, F-15E 전투기를 비롯하여 전투헬기, 해상초계기 등과 러시아가 애심작으로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내어놓은 Su-37, 그리고 프랑스의 최신예 Rafale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견문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전시되는 항공기중에 시범비행에 참여하는 기종은 미국의 F-15C, F-16C, F/A-18을 비롯 러시아의 Su-30과 Su-37, 프랑스의 Rafale이 제각기 성능을 자랑하고, 그 외에 대형 여객기 A-340과 Bell-430 헬기 등도 비행한다.





이번 서울에어쇼에는 한국의 'Black Eagle', 미국의 Sierra Aces팀 등 4개국 곡예비행팀이 참가하여 멋진 묘기를 선보일 것이다

그러나 민간인들에게 가장 친숙하게 보여질 곡예비행은 4개 팀이 참가하게 되는데 먼저 한국공군의 A-37 6대로 구성된 "Black Eagle"과 미국의 Sierra Aces(3 Pitts S-2B)팀 및 호주의 곡예비행팀 그리고 러시아의 Su-29M과 Su-31M 등 소형비행기들이 손에 땀을 절만큼 아슬아슬하고 멋진 묘기를 보여줄 것이다.

비단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뿐만아니라 관심있는 국민들과 특히 꿈 많은 학생들에게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수한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최측에서는 일주간의 에어쇼 기간 동안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 수가 총 100만명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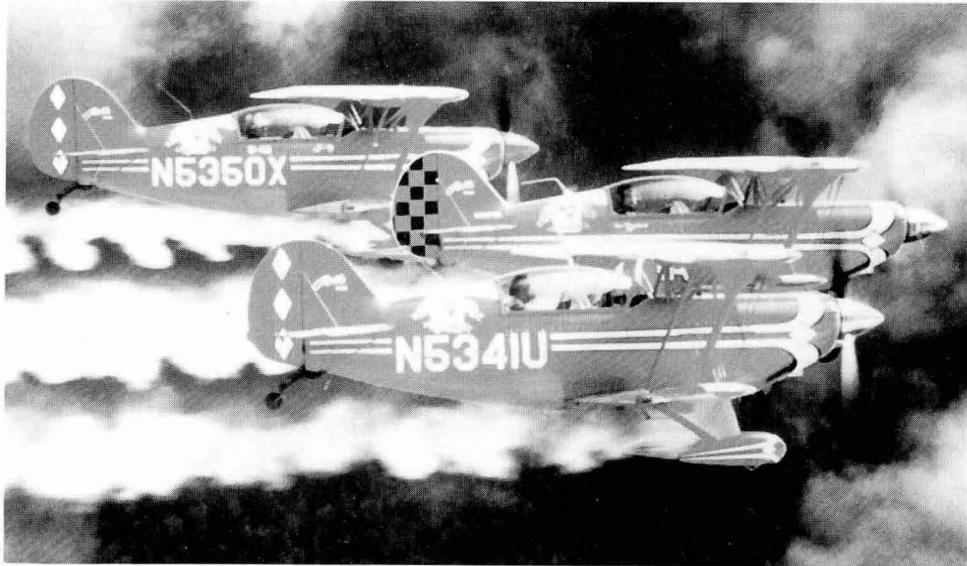
에어쇼 기간중에는 앞에서 언급한 항공우주 산업 및 방산제품의 실내 전시와 항공기들의 옥외전시, 그리고 시범비행과 곡예비행 외에도 항

공우주 심포지엄과 기술시장 (Techno Mart)이 개최된다.

항공우주 심포지엄은 서두에 설명한 것과 같이 공군사관학교 주관하에 7번째 열리는 것으로 호텔 롯데월드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항공우주 시대의 새로운 인식과 조망"이라는 주제하에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10개의 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연사중에 인도네시아의 하비비(B. J. Habibie) 과기처 장관은 "항공우주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이라는 기조연설을 하며, 제1분과는 "2000년대 안보환경 변화와 항공력의 역할"에 관하여 대학교수 및 공군에서 3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2분과에서는 "한번도 주변국의 항공우주력"이라는 주제하여 美 태평양 공군사령관 로버(J. G. Lorber)대장, 일본 전 항공막료장 이시즈카 대장 등 3명이 참여한다. 3분과는 "한국의 항공우주력 증강을 위한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연구소, 국과연 등 4명이 각 분야별 발전방향을 논하며, 대학교, 연구소, KIDA 등에서

서울에어쇼 '96에  
참가해 가을하늘  
을 멋지게 수놓을  
미국의 곡예비행  
팀인 씨에라 에이  
스의 모습



참가한 토론자들이 각각의 주제 발표에 대하여 토론과 질의를 편다. 청중의 참가 규모는 250명 선으로 각계의 항공우주분야 전문요원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에어쇼 행사장내에 조성된 별도의 회의실에서는 테크노 마트가 열리는데 기간은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세미나와 광범위한 신기술 및 제품소개 등이 이루어진다.

테크노 마트의 주제는 “2000년대 항공우주산업의 미래 및 항공우주기술의 산업적 이용”으로 정하였고, 세미나는 “미래의 우주정거장”, “항공기용 가스터빈의 산업적 이용” 등 13개 소 주제에 대하여 러시아 우주연구소, 영국 버밍엄대 교수 등이 논문을 발표한다.

또한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한국통신, 보잉사 등 30개 업체에서 무인항공기, 무궁화위성 등 33개 신제품에 대한 기술소개를 실시하고 업체들간의 협력 및 비즈니스를 위한 상담실도 마련된다.

행사 전야제와 개막식에는 국무총리를 비롯

한 정부 및 군 관련 주요인사와 해외 주요국의 국방, 통상관련 외빈, 외국의 각군 참모총장, 주한 외국군 장성, 외교사절, 그리고 참가업체 대표 등을 초청하여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매우 의미 깊은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내전이 종식된 지금 세계는 엄청난 변혁을 겪고 있다. 엘빈 토플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의 이곳 저곳에서 서울에어쇼와 유사한 행사등이 추진되고 있다. 당장 금년 11월 초에는 중국이 북경에어쇼를 계획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인도에서 항공우주산업 전시회 (Aerospace Exhibition)를 추진하고 있어 서울에어쇼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파리 에어쇼나 환보로 에어쇼같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행사들 외에도 아시아에서는 싱

가포르가 일찍이 에어쇼를 시작하여 7회에 걸친 행사를 치르는 동안 유럽의 에어쇼에 비해 순색 없는 국제적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였으며, 대전 엑스포도 국제적인 행사로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에어쇼는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외국업체나 관람객들에게 집 안잔치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업 선진국들과 국제사회에서의 경쟁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많은 나라들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며 국위 선양 효과가 있다.

둘째, 국내의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인, 기술자들에게 전 세계 제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국가전략 사업화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항공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첨단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심대하다.

셋째, 군의 입장에서 보면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국방비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시장의 다변화 구축 및 국제계약에서 불리한 여건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외국이나 외국의 기업들에게 우리나라와 국내의 항공우주관련 기업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줄 것이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는 물론 외국기업과의 합작 기회도 크

게 신장될 것이다.

다섯째, 외국 귀빈의 초청과 외국 기업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군사 및 경제 외교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국제적 행사 개최가 용이해 진다. 역사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에어쇼를 치루는 나라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진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준비기간이 짧았던 것이 사실이며 경험이 없다는 것도 취약점의 하나이지만, 에어쇼 행사에 투입되어 있는 요원들은 너나 할것없이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일각으로부터 우리의 에어쇼가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의 소리도 들리지만, 우리 국민들의 성원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두 번 세 번 경험을 쌓으면서 세계 유수의 에어쇼들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대회의 성공 여부가 향후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항공우주산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현재와 미래에서 가장 유망하고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온 국민이 항공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필요성을 공감하는 화합과 협력의 장이 되도록 관련요원 모두의 노력과 정성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에어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회부터 이행사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나 단체를 만들어 대비하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기대하면서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꿈많은 청소년들에게 직접 현장에 와서 보고 체험하여 우리의 시야를 전 세계 또는 우주로 넓혀 나갈 것을 권한다. ■